

가정과 교육에서의 부모교육
-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

정순화*¹⁾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Parent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 SoonHwa*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al components of parent education curriculum for college students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continuity and hierarchy of the parent education curriculum for college students and th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domai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examin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domain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2015 revision were considerably related with the components of parent education curriculum for college students. Second, the compon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domain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2015 revision were considerably related with the components of parent education curriculum for college students. Third, the compon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domain in middle and high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2015 revision and parent education curriculum for college students showed a hierarchical pattern in range and depth of contents.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parent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was discussed.

Key words: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인간발달과 가족(human development and family), 가정과 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1) 교신저자: Chung, SoonHwa,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1, Fax: 02-927-7934, E-mail: eigles@korea.ac.kr

2) 본 논문은 '학교에서의 부모교육과 가정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을 확장시킨 것이다.

I. 서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에 따라 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가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보호요인으로서 부모교육의 효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종전에 아동의 부적응행동이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위험요인보다는 부적응 행동의 유발을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민감성이나 양육효능감 등의 역량을 키워주는 보호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은 우리 주변의 많은 위험요인이 실제로 차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부모교육은 바로 이처럼 부모나 예비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통찰을 돕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위험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도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가 처한 외적 상황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부모의 경직된 태도, 낮은 역량과 결부시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족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감시키거나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찍이 Thomas와 Chess는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과 ‘조화의 부적합성(poorness of 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의 기질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바 있다(Thomas & Chess, 1977).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민감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며(Sulik et al., 2015),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여주거나 심리적 적응력을 높여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oyer & Nelson, 2015; Manning, Davies, & Cicchetti, 2014). 나아가 자녀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능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모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ierman, Welsh, Heinrichs, Nix, & Mathis, 2015).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되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긍정적 양육태도는 증가한 반면 양육스트레스 등 부정적 특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hn, Lee, & Kweon, 2015; Chung et al., 2015; Chung, Lim, Chung, Kim, & Park, 2008; Kim, 2015; Kim & Chang, 2015; Kim & Chung, 1999; Kim et al., 2015; Lee, 2015; Lee, Bak, & Jeong, 2015; Park, Kim, & Jang, 2015; Song, Shin, & Heo, 2015), 자녀에게서도 자아개념이나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능력의 향상, 정서적 안정, 정신건강 증진, 성격특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Ahn et al., 2015; Kim, 2015; Kim & Chung, 1999; Kim, 1997; Kwon, 1994).

이러한 부모교육의 효과는 예비부모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비부모교육이 예비부모로서 청소년의 태도나 가치관뿐 아니라 기본자질 및 지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기인식이나 정신건강의 증진,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인식 및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향상,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및 아동교육관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Jang & Cho, 2009; Kim, 2004; Kim, Kang, & Park, 2011; Kim, Kang, Yoo, & Park, 2010; Kim, 2016; Lee, 2003; Seo, 2016).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후 생식가족에서의 부모역할뿐 아니라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특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모교육이 현재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뿐 아니라 미래에 부모가 될 예비부모의 역량을 강

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나 예비부모로서의 역량 강화는 위험 상황에서 가족문제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부모교육의 파급효과는 부모교육이 아동학대 등의 가족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가족형태의 핵가족화, 소가족화, 여성취업률의 증가, 부모역할보다 직업역할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인식부족, 준비부족을 유발하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과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역할을 익히는 것이 가능했던 전통적인 확대가족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족형태의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부모역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별도의 교육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부모역할을 익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취업률의 증가로 맞벌이가족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역할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고, 인식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이중역할, 역할과부하로 연결되며, 방임,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부모역할보다 개인의 직업적 역할을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적 역할과는 달리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Chung & Chung, 2016).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지식부족, 기술부족 등 준비부족은 부모역할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고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현재 여러 단체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다수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짧은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내용을 단편적인 흥미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회성의,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Chung & Chung, 2016).

또한, 부모교육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널리,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도 부모가 되기 이전에 학교교육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교육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여러 대학에서도 예비부모교육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고, 교육의 내용은 부모교육이론이나 프로그램,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등에서 학교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자녀의 발달단계별 특성 및 부모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im, 2004).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부모교육의 부재를 그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2016년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 진학을 하였다고 해서 예비부모교육 관련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의 확대는 그 대상에서 한계가 있고, 예비부모교육 대상의 포괄성, 교육시기의 적기성, 교육내용의 체계성 등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과 연계하여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의 교육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부모교육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관련 교과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예비부모교육이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모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예비부모교육이 다양한 과목명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정해진 교과서를 근거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예비부모교육이 어떠한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지침이나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산과 예비부모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16주의 세부내용을 담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을 제시하고,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 교양과목의 확대 실시를 권고하였다.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은 지금까지 근거자료가 전무한 예비부모교육의 구성 내용이나 활동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내용과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내용의 비교·분석 자료를 토대로 가정교과를 통한 예비부모교육 실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

현재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가정교과 내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던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을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기보다는 기존 가정교과 내에서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나아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내용체계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체계가 연계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위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교육내용에서 보다 심층적인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내용과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내용의 비교·고찰은 가정교과에서의 예비부모교육 실시의 효율성을 주장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5개정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학습요소와 내용요소를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요소와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그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 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내용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내용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 간의 위계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과 교육에서의 예비부모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논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015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체계는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구성내용과 연계성을 갖는가?

2. 2015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체계는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구성내용과 연계성을 갖는가?
3. 2015개정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은 위계성을 갖는가?

II.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원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구성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체계는 이론적 관점이나 교육대상의 특성, 교육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각 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에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예비부모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부차원에서 제시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제시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주별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과 자녀 돌봄 관련 내용이다. ‘태내기 부모역할’ ‘영아기 부모역할’ ‘유아기 부모역할’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분은 예비부모로서 결혼을 하여 생식가족을 이룬 미래 시점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부모역할과 자녀 돌봄을 강조한 것은 예비부모인 대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역할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이와 동시에 자녀의 발달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

식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나 방임 등 역기능적 부모역할이 미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에는 미래의 부모역할에 앞서 현재의 원가족 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나에 대한 이해-예비부모로서의 나’ 부분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비부모

Table 1. Contents of parent education in college

	개요(예시)	세부내용 및 활동
1주	강의소개 예비부모교육의 개념	· 강의 개요 및 강의 방식, 평가 방안, 과제 등에 대한 안내 · 예비부모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이해
2주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 부모됨의 동기, 부모역할의 가치 및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 ·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역할의 변화 이해
3주	나에 대한 이해(1) - 성장기	· 자신의 성장기 고찰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인성 구조에 대한 이해 및 인성검사
4주	나에 대한 이해(2) - 예비부모로서의 나	· 다양한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Baumrind의 양육태도) · 부모님의 양육방식과 자신의 현재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 자신의 인성과 부모님의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
5주	부모양육태도	·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녀관 및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함양 · 부부공동양육의 의미와 중요성 · 지역사회 공동체와 부모됨
6주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 부모됨의 다양한 맥락의 이해 · 결혼관계(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경제활동(맞벌이가족, 일가정 양립) 등 가족형태별 부모됨의 이해 · 가족정책으로 본 부모됨의 요구와 의미
7주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	· 문제의 소유자에 따른 나-전달법, 반영적 경청 사용법 이해와 연습 · win-win 전략의 사용
8주	중간고사	
9주	자녀의 발달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가족생활주기별 부모-자녀관계의 특징 이해
10주	태내기 부모역할	· 태내발달 단계 및 태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해 · 태내기 부모역할 및 태교, 출산에 대한 이해 · 태내기 부모역할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자원
11주	영아기 부모역할	· 애착 형성의 중요성 및 영향에 대한 이해 · 영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영아기 부모역할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자원
12주	유아기 부모역할	· 유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유아기 사회·정서발달을 돕는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유아기 부모역할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자원
13주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아동·청소년기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및 자아정체감, 가치관 형성을 돕는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자원
14주	역기능적 부모역할	· 아동학대, 방임 등 역기능적 부모역할이 개인의 발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예방책에 대한 이해
15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한국의 부모교육 기관의 현황 · 부모교육의 참여
16주	기말고사	

여성가족부(2016).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교육이 미래에 생식가족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현재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에서는 ‘민주적 의사소통방식’ ‘부모양육태도’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등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의 이해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용은 부모역할이 부모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 가족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거시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지역사회의 자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이 부모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역할로 인식되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2.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위계성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구성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교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찍이 Tyler(1949)는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기본 원리로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계속성은 중요한 교육경험요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계열성은 단순히 반복되고 누적되는 것에서 나아가 점차 경험의 수준을 높여서 더욱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성은 학습경험을 횡적으로 상호 조화롭게 연결지어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Gagne(1970)는 학습 위계(learning hierarchy)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교육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Gagne가 말한 학습 위계의 원리는 Tyler의 계열성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육모형의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교

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서도 계속성과 계열성(위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Kim, Park, Choi & Lee, 2013; Park & Lee, 2014; Lee & Yeo, 2015; Choi, & Cho, 2015). 계속성과 위계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연계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연계성의 개념은 연구에 따라 계속성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계속성과 계열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계성을 ‘학교급 간 및 학년 간, 교과 내용 영역 간 및 단원 간의 수평적(범위) 및 수직적(계열) 연속성과 위계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정도’(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교육과정 개발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 기준으로서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연계성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질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연계성은 교육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Tyler의 계열성의 개념은 연계성이라는 개념 범주로서 포괄적으로 연구되기도 하지만 이외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위계성의 개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Ha, 2009; Jun, 2008; Song & Kim, 2007). 위계성의 개념은 상이한 학교 급간의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시되는 개념이다. 학습 경험은 학습자가 성취할 수 있고, 학습자의 성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학습자가 성취할 가능성이 없는 내용은 오히려 학습자를 좌절시키거나 학습의 흥미를 반감시킴으로써 학습의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학교 급별로 위계성은 가지고 교육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확대시키는 위계성이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발달 단계에 따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위계성의 개념은 다른 교과와는 달리 발달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내용과 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yler(1949)가 제시한 계속성의 개념을 연계성으로, 계열성의 개념은 위계성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연계성(continuity)은 중요

한 교육경험요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교육과정의 조직된 것을 의미하며, 위계성(hierarchy)은 단순히 반복되고 누적되는 것에서 나아가 점차 경험의 수준을 높여서 더욱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고등학교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과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내용체계 간의 반복성을 중심으로 연계성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보다 심층적인 학습여부를 중심으로 위계성을 고찰함으로써 가정교과에서의 예비부모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과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인간발달과 가족’영역과 대학교 부모교육 내용체계의 연계성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과 부모교육과

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발달’ 핵심개념은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라는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하고,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며,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의 학습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분과 연계성을 갖는다.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가운데 신체발달과 인지발달, 정서사회성발달 관련내용은 자신의 성장기 고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부분과 연계성을 가지며, 자아정체감 발달 관련내용은 자신의 내면의 힘, 감정, 필요와 가치에 대해 알아가는 자아정체감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분과 연계성을 갖는다.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 관련 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분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관련 내용은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부분의 부모됨의 동기나 ‘역기능적 부모역할’ 부분의 아동학대, 방임 등 역기능적 부모역할이 개인의 발달 및 사회에 미

Table 2. Contents of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and parent education in college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핵심개념	학습요소	내용요소	내용요소
발달	청소년기 발달 특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또래 문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 청소년기 성적 발달,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	•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 역기능적 부모역할
관계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 평등하고 세대 간 민주적인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 가족 관계	•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

치는 영향 및 예방책에 대한 이해와 연계성을 갖는다.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관계’ 핵심 개념에는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의 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는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이해,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탐색 및 실천,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 파악,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 탐색과 실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분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탐색과 실천 등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사회변화와 부모 역할’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과 연계성을 갖는다.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탐색과 실천 관련 학습내용을 다룬다. 이 가운데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이해 관련 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사회변화와 부모역할’과 연계성을 갖는다. ‘가족 관계’에서는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 형성 방안 탐색과 실천 관련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부모됨의 다양한 맥락과 일·가정 양립 등을 다루는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과 연계성을 갖는다.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

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탐색과 실천 관련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과 연계성을 갖는다.

2. 고등학교 ‘인간발달과 가족’영역과 대학교 부모교육 내용체계의 연계성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 ‘발달’에는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세 가지 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학습내용은 건강한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랑과 결혼의 의미 이해,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 탐색,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고정관념 성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 부모됨의 의미 인식,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탐색,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과정 이해,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 탐색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태내기 부모역할’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나에 대한 이해-예비부모로서의 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성을 갖는다.

‘사랑과 결혼’ 내용요소에서는 건강한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는 것과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고정

Table 3. Contents of home economics in high school and parent education in college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계획안	
핵심개념	학습요소	내용요소	내용요소
발달	사랑과 결혼의 의미, 행복한 결혼, 배우자 선택 기준, 부모됨, 임신 중 생활, 태아발달, 출산,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특징, 자녀 돌보기,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	• 사랑과 결혼	•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 나에 대한 이해-예비부모로서의 나
		• 부모됨의 준비	•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임신 중 생활과 출산	• 태내기 부모역할
관계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특징, 자녀 돌보기,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 가족 문화, 가족의 역사, 세대 간 관계	• 자녀 돌보기	• 영아기 부모역할 • 유아기 부모역할 •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 부모양육태도
		•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 자녀의 발달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관념을 성찰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학습내용 가운데 특히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개인적 고정관념 성찰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은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나에 대한 이해-예비부모로서의 나’와 연계성을 갖는다. ‘부모됨의 준비’는 부모됨의 의미를 인식하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는 내용을 다루며, 이는 ‘사회변화와 부모역할’의 부모됨의 동기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성을 갖는다. ‘임신 중 생활과 출산’에서는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 관련 내용을 다루며, 이는 ‘태내기 부모역할’과 연계성을 갖는다.

핵심개념 ‘관계’에는 ‘자녀 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 돌보기’에서는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자녀 돌보기의 방법을 익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추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영아기 부모역할’ ‘유아기 부모역할’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모양육태도’ 등과 연계성을 갖는다.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는 가족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대 간 관계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 관계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이는 가족생활주기를 통해 변화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적 속성을 강조하는 ‘자녀의 발달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연계성을 갖는다.

3. 중·고등학교 ‘인간발달과 가족’영역과 대학교 부모교육 내용체계의 위계성

다음으로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내용체계와 예비부모교육 구성내용의 위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요소와 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 구성내용을 비교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하위영역 가운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두 가지 핵심 개념 가운데 ‘발달’의 내용요소로는 중학교 과정은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고등학교 과정에는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이 포

함된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중학교에서는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자신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발달에 대한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배우자로서 또는 예비부모로서 자신의 발달과 관련된 영역으로 확대된다.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나에 대한 이해-예비부모로서의 나’에서는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자신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발달은 청년기에 속해 있는 자신의 발달 특성 자체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예비부모로서 자신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대학교 과정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부모의 양육방식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는 중학교 과정은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는 ‘자녀 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발달’ 핵심개념과 유사하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청소년 자녀로서 가족에 대한 역할만을 강조한 것이라면, 고등학교에서는 관계의 개념이 단순히 자녀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에 부모가 되어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보다 확장된다.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에는 부모가 되어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장될 뿐 아니라 단순히 미시체계로서의 부모역할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등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까지 관계의 범위가 확장되며, 가족생활주기나 사회변화에 따른 시간체계까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또한 ‘영아기 부모역할’ ‘유아기 부모역할’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등으로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부모역할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여러 다양한 가족상황이나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부모됨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과 대학 부모교육의 구성내용은 연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위계성을 갖는다.

Table 4. Contents of home economics in middle and high school and parent education in college

핵심개념	학교급	내용요소	학습요소
발달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 	청소년기 발달 특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또래 문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 청소년기 성적 발달, 건강한 성 가치관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과 결혼 • 부모됨의 준비 • 임신 중 생활과 출산 	사랑과 결혼의 의미, 행복한 결혼, 배우자 선택 기준, 부모됨, 임신 중 생활, 태아발달, 출산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 나에 대한 이해-예비부모로서의 나 • 태내기 부모역할 •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 역기능적 부모역할 •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성장기 고찰을 통한 자기 이해, 자신의 인성 구조 이해 및 인성 검사, 다양한 양육방식 이해, 아동학대나 방임 등 역기능적 부모역할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 참여
관계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 가족 관계 •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돌보기 •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특징, 자녀 돌보기,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 가족 문화, 가족의 역사, 세대 간 관계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내기 부모역할 • 영아기 부모역할 • 유아기 부모역할 •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 자녀의 발달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 •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 	태내기에서 아동·청소년기까지 부모역할 이해, 부모역할을 위한 자원 이해,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자녀관계의 이해, 부모 양육태도와 부부공동양육의 중요성 이해.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역할 변화 이해,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와 연습, 다양한 가족 형태별 부모됨의 이해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교육을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개정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그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2015개정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체계는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구성내용과 연계성과 동시에 위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말

해주는 것이다.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체계는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구성내용과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핵심개념의 내용요소인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의 학습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부분과, 자아정체감 발달 관련내용은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분과 연계성을 갖는다.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 관련 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부분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관련 내용은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부분의 부모됨의 동기나 ‘역기능적 부모역할’ 부분과 연계성을 갖는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인 청년기는 급격한 신

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급성장을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년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나간다. 부모교육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성찰을 통한 자기역량 강화이며 (Chung & Chung, 2016), 이는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청소년기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 속해 있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발달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대학교 부모교육에서 ‘나에 대한 이해’는 시간적으로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과거의 성장기의 고찰에서 미래의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깊이 있는 인성에 대한 이해나 검사,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 관련 내용은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영역이다. 실제로 부모교육이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Jang & Cho, 2009)는 연구결과는 부모교육이 십대임신이나 미혼모의 증가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전임신이나 미혼모 발생연령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며, 나아가 아동학대가 주요한 가족문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 가운데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이해 관련 내용은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사회변화와 부모역할’과, 다양한 가족관계와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다루는 ‘가족 관계’는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역할’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은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과 연계성을 갖는다. 중학교에서는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기능 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대학교 부모교육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역할의 변화뿐 아니라 나아가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서의 부모역할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의사소통방식은 가족관계의 유지와 갈등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학교에서도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며, 대

학교 부모교육에서는 문제의 소유자에 따른 나-전달법, 반영적 경청 사용법 이해와 연습 등 의사소통 방식의 심층적 이해와 실천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둘째, 2015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핵심개념 ‘발달’에는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세 가지 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부모교육의 구성내용과 연계성을 갖는다.

‘사랑과 결혼’ 내용요소 가운데 특히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개인적 고정관념 성찰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은 ‘나에 대한 이해-성장기’ ‘나에 대한 이해-예비부모로서의 나’와 연계성을 갖는다. ‘부모됨의 준비’는 ‘사회변화와 부모역할’의 부모됨의 동기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성을 갖는다. ‘임신 중 생활과 출산’에서는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이는 ‘태내기 부모역할’과 연계성을 갖는다.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개인적 고정관념은 상당 부분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과 부모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가능하다. 대학교 부모교육에서는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기제에 대한 내용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즉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세대간 전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애착의 세대간 전이(van IJendoorn, 1992)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부적응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준비부족과 관련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부모됨의 준비는 이해위주로 이루어지지만 대학교에서는 참여 가능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부모됨의 준비를 폭넓고 다양하게 준비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 가운데 ‘자녀 돌보기’는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영아기 부모역할’ ‘유아기 부모역할’ ‘아동·청소년기 부모역할’ 등과 연계성을 갖고, ‘가족문화와 세대간 관계’는 ‘자녀의 발달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영아기 부모역할’에서 애착형성과 영향에 대한 이해와 연계성을 갖는다.

고등학교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자녀돌보기의 내용이 대

학교 부모교육 내용체계에서는 보다 세분화되는 것으로 연계성을 갖는다. 실제 자녀돌보기의 주요 교육대상은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며,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어머니가 그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자녀가 생긴 이후, 관계형성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족문제를 차단하거나 경감시키는 예방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잦은 빈도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나 반응성 애착장애 등의 발달장애도 부모자녀 간 초기의 상호작용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여성취업률 증가로 인해 어머니가 전적으로 자녀양육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녀돌보기는 예비부모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관계’의 내용요소에 세대 간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신체적 체벌의 세대간 전이(Muller, Hunter, & Stollak, 1995)나 불안정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Rholes, Simpson, & Friedman, 2006)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년 세대의 자녀로 하여금 부모세대와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 나아가 부모세대에 대한 이해심과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셋째, 2015개정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은 위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영역에서 중학교 과정은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은 사랑과 결혼, 부모됨, 임신과 출산 등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발달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교에서는 가족관계 이외에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확대된다. 또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과정은 가족의 변화나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청소년 자녀로서의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이 자녀돌보거나 세대간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로서, 주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관계형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가족형태별 부모됨의 요구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체계

는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실제 관계에 접목시키는 부분을 보다 강조하고 있고, 대학교 부모교육의 구성내용은 그 관계의 범위나 깊이가 고등학교에 비해 보다 확장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구성내용이 상당 부분 연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위계성도 갖는다는 사실은 부모교육을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관련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부모교육을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의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특성상 가정교육만으로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도 낮고, 이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가족형태의 핵가족화, 소가족화, 여성취업률의 증가, 부모역할보다 직업역할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종래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을 부모에게 일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의 일정 부분을 학교교육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그 역할은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가정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과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는 상당히 연계성을 갖는다.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부모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만큼 상당 부분 연계성을 갖는다.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일정,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모교육을 위해 초과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내용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가정교과에서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연계시켜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셋째, 부모교육과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는 상당히 위계성을 갖는다. 이는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기본적인 부모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만큼 부모교육 관련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나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대학교에서의 반복학습과 심층학습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부모교육 관련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가정과 교사들

이 가장 전문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교수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모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교육이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전문성은 부모교육의 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를 통해 아동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대학에서도 예비부모교육이 교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여 가정학의 아동가족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즉, 부모교육의 기초적인 내용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가정교과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부모교육 교수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모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교육이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부모 자신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분야는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부모교육과 그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 부모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대상의 포괄성, 실시의 적기성과 지속성, 내용의 체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에서 담당교사들은 수업진행의 애로사항으로 시청각 자료 및 교재교구의 부족,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 실습교육의 불가능 순으로 응답하였다(Kim, Choi, & Cho, 2004). 그러므로 실제 부모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에서는 교육매체로 아기 모형인형의 사용 등 기자재를 다양화하거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역할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체계적인 예비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부모가 된다는 것에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고 있다. 부모가 되기 이전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보다 준비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건강한 가정,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8년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부모교육의 내용요소와 대학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요소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후 효율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Ahn, J. H., Lee D. C., & Kweon, Y. R. (2015). Effects of an parenting education program using Inner-Child Counseling on satisfac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arenting efficacy for par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19-2731.
- Bierman, K. L., Welsh, J. A., Heinrichs, B. S., Nix, R. L., & Mathis, E. T. (2015). Helping Head Start parents promote their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The research-based developmentally informed parent program. *Child Development*, 86(6), 1877-1891.
- Boyer, B. P., & Nelson, J. A. (2015).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childhood parenting and adolescent health: The mediating influence of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86(3), 828-843.
- Choi, S. J. & Cho, S. Y. (2015). An analysis of the continuity and sequence of science educational contents in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Nuri Curriculum for 3 to 5 year-Olds, and 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Journal of Research in*

-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 69-91.
- Chung, H. S., Yoo, E. Y., Jung, M. Y., Park, J. H., Lee, T. Y., & Lee, J. Y. (2015). The effects of sensory integration coping skills parent program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on th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3), 111-126.
- Chung, O. B. & Chung, S. H. (2016). *Parent education*(2nd edition). Seoul: Hakjisa.
- Chung, O. B., Lim, J. H., Chung, S. H., Kim, K. E., & Park, Y. J. (2008). Attachment to parents, motives for parenthood and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A working model.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5(4), 67-91.
- Gagne, R. M. (1970). *The conditions of learning*(2nd ed.). New York: Hott, Rinehart & Winston.
- Ha, Y. J. (2009). *A study on hierarchy of chorus in elementary 3rd-6th grade music textbook by 2009 revised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Jang, Y. S. & Cho, H. J. (2009). Development of pre-parenthood education program and satisfaction evaluatio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1), 63-82.
- Jun, J. H. (2008) *Analysis of conceptual hierarchy in the textbooks of social studies for Middle to High School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Kim, E. S., Choi, Y. K., & Cho, H. J. (2004). Pre-parent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and its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6(1), 1-19.
- Kim, H. E. & Chung, O. B. (1999). Effects of the empowering parents training program on mothers and their Children: Emphasizing on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4), 179-193.
- Kim, H. S. (1997). *The effects of group counselling in empowering parents train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J., Park, S., Choi, J., & Lee, H. (2013).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n the sequence and integr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a* (Research report RRC 2013-3).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im, J. M. (2004). *Pre-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program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 Kim, J. M., Kang, J. W., & Park, S. Y. (2011).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Parent Education*, 3(2), 1-19.
- Kim, J. M., Kang, J. W., Yoo, E. Y., & Park, S. Y. (2010).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2(1), 17-39.
- Kim, M. J., Doh, H. S., Shin, N., Kim, S. J., Song, S. M., Shin, J. H., & Kang, H. (2015).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ected Parents and Respected Children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early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6(3), 35-57.
- Kim, S. J. (2016). The study on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0(3), 383-414.
- Kim, Y. S. (2015).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9, 7-37.
- Kwon, C. K. (1994). *A study on the effect of how to guide children and children's stability and sociability in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Korea.
- Lee, B. N. (2003).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1), 133-152.
- Lee, H. & Yeo, C. (2015).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n the articulation of the science curriculum: Focus on the concept of photosynthesi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5(5), 805-815.

- Lee, K. S. (2015).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on rearing attitude of the Vietnamese immigrant women with young childre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8(1), 107-131.
- Lee, O., Bak, S., & Jeong, H. (2015). The effects of Empowerment program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mothers' efficac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5(2), 65-84.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nning, L. G., Davies, P. T., & Cicchetti, D. (2014). Interparental violence and early childhood adjustment: how and why maternal sensitivity is a protective factor. *Child Development*, 85(6), 2263-2278.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EHRD]. (2007). *A guide for science curriculum*. Seoul: Author.
- Muller, R. T., Hunter, J. E., & Stollak, G. (199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rporal punishment: A comparison of social learning and temperament models. *Child Abuse and Neglect*, 19(11), 1323-1335.
- Park, H. S., Kim, K. M., & Jang, M. Y. (2015).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sensory integration approach on the parent's understanding of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ists*, 13(1), 33-44.
- Park, M. R. & Lee, O. S. (2014). Curriculum continuity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E invasion game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7(1), 29-55.
- Rholes, W. S., Simpson, J. A., & Friedman, M. (2006). Avoidant attachment an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275-285.
- Seo, S. (2016). The effects of the expectant paren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model for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Open Parent Education*, 8(4), 215-233.
- Song, M. Y., & Kim, S. H. (2007). Investigating the hierarchical nature of content and cognitive domains in the mathematics curriculum for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via assessment item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School Mathematics*, 9(2), 223-240.
- Song, S. H., Shin, H. Y., & Heo, S. Y. (2015).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s personality education on parent's recognition change about personality education and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553-576.
- Sulik, M. J., Blair, C., Mills-Koonce, R., Berry, D., Greenberg, M., &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2015). *Child Development*, 86(5), 1588-1603.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 76-99.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개정 기술·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그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2015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체계는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구성내용과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5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내용체계는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 구성내용과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개정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내용체계와 대학교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은 위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교육을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내용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임을 논의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8월 14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2월 13일